



테니스 '빅2' 조코비치·나달 ATP 프랑스오픈 16강 안착

2020 프랑스오픈(총상금 3800만 유로·약 520억 원)에 출전한 '빅3' 중 두 명이 16강에 안착했다.

남자 프로테니스(ATP)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는 4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스타드 롤랑가 로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식 3회전에서 다니엘 엘라히 갈란(153위·몰도비아)에 3-0(6-0 6-3 6-2)으로 승리했다. 2016년에 이어 4년 만에 프랑스오픈 타이틀을 노리는 조코비치는 1~3회전까지 3경기 연속 상대에게 5개 임판 내주며 16강에 올랐다.

조코비치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메이저대회 단식 우승 횟수를 18회로 늘려 로저 페더러(4위·스위스)의 20회,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의 19회와 격차를 좁히게 된다.

우천으로 경기가 지연되자 조코비치는 갈란을 배려하며 세계랭킹 1위의 품격을 보였다. 2세트 도중 비가 내리자 주최 측은 경기장 지붕을 닫았다. 갈란의 코트 쪽 지붕이 늦게 닫혔다. 그로 인해 갈란은 코트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를 펼쳐야 했다. 조코비치는 플레이를 멈춘 후 코트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 이 과정에서 직접 코트 정비 작업에 나서는 익살스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3일에는 '휴신' 나달이 3회전에서 스테파노 트라팔리아(74위·이탈리아)를 3-0(6-1 6-4 6-0)으로 완파하고 16강에 진출했다. 나달은 프랑스오픈 4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고 있다. '빅3' 중 맏형인 페더러는 부상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

'노룩 스트로크' 화제의 가르시아 PGA 샌더슨 팜스 3R 공동 선두



가르시아

눈을 감고 퍼트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는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가 공동 선두로 도약했다.

4일(한국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잭슨의 잭슨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총상금 660만 달러·77억1500만 원) 3라운드에서 6타를 줄여 중간합계 14언더파 202타로 캐머런 데이비스(호주), J.T 포스틴(미국)과 함께 공동 선두그룹을 형성했다. 브랜트 스넬데커(미국)와 크리스토퍼 벤투라(노르웨이)가 13언더파로 1타 차 공동 4위에 랭크됐다.

가르시아는 "눈을 감으면 스트로크할 때 조금 더 자유로운 느낌을 갖게 된다"며 "머릿속을 비우고 시야를 가리면 결과가 더 좋은 것 같다"고 밝혔다. 2017년 마스터스 우승자인 그는 최근 3~4년 동안 가끔 눈을 감고 퍼트를 했고, 마스터스 우승 때도 그런 적이 있다고 밝혀 주변을 놀라게 했다. 마스터스 이후 PGA 투어에서 우승을 하지 못하며 얼마 전 9년 만에 세계랭킹 50위 밖으로 밀려난 가르시아는 '노룩 스트로크'를 앞세워 최근 4개 대회에서 3번이나 컷 탈락했던 부진을 만회할 기회를 잡았다.

한국 선수들의 성적은 대체로 좋지 못했다. 이경훈(29)이 2타를 줄이는데 그치며 5언더파 공동 39위에 자리했고, 임성재(22)는 이븐파를 쳐 합계 3언더파 공동 52위에 머물렀다. 김시우(25)는 2타를 잃고 1언더파 공동 63위에 그쳤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KBL 2020~2021시즌이 9일 개막한다. 손 롱(현대모비스), 얼 클락(KGC), 아이제아 히스(삼성·왼쪽부터) 등 수준급 외국인들이 대거 유입돼 출격을 준비 중이다. 라건아(KCC), 자밀 워니(SK), 캐디 라렌(LG) 등 KBL 경력자들이 이들을 상대로 여전한 지배력을 선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손 롱·얼 클락...NBA 출신들 수두룩

(현대모비스) (KGC)

외국인선수 스무명 중 새 얼굴 15명 평균 신장이 더 커져 높이싸움 예고 라건아 등 기존 외국인과 경쟁 공금증

국내 프로농구에서는 외국인선수의 존재가 절대적이다. 2019~2020시즌부터 2명 보유·1명 출전으로 쿼터를 축소했지만, 그 중요성은 여전하다. 프로농구 10개 팀은 10월 9일 개막하는 2020~2021시즌에 대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외국인선수를 영입에 나섰다. 그 결과, 예년에 비해 수준 높은 기량의 선수들이 KBL 무대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새 얼굴 즐비...가장 주목받는 선수?

각 팀 코칭스태프는 비 시즌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해외 출장길이 막혔다. 선수의 기량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차례의 검증을 거쳤다. 영입 대상 선수들의 영상을 수도 없이 보면서 기량을 확인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

정보 수집한 끝에 계약을 체결했다.

15명의 새 얼굴 중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울산 현대모비스의 손 롱(27·206cm)이다. 미국프로농구(NBA), 호주리그 경력의 롱은 2년 전부터 많은 구단의 관심을 받았던 선수다. 지난 시즌에는 뎀버튼에서 31경기 출전, 평균 18.6점·9.5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정상급 센터로 활약했다. 하프코트, 트랜지션 공격 모두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뽐냈으며 클러치상황에서는 39번의 공격기회(포제션)에서 48점을 올렸는데 이는 호주리그 상위 1%에 해당하는 수치다. 9월 말 군산에서 벌어진 '2020 MG새마을금고 KBL 컵'에서는 발목 부상 여파로 창원 LG와의 조별리그 1경기(21득점)만 출전하는 등 자신의 기량을 다 보여주지는 않았다.

통과 함께 NBA 경력자인 안양 KGC의 얼 클락(32·208cm), 서울 삼성의 아이제아 히스(26·202cm) 등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NBA에서 6시즌을 소화했던 클락은 터키, 스페인 등 유럽 명문 리그에서 수준급 포워드로 활약한 선수

다. 히스는 러시아와 NBA 하부리그인 G리그에서 최고 수준의 수비능력을 자랑했다. 지난시즌 러시아 사라토프에서 페인트존 부근에서 상대에게 단 26.7%의 실점만을 허용했다. 다만 히스는 컨디션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아직까지 연습경기에도 나서지 않고 있어 코칭스태프의 애를 태우고 있다.

또 다른 NBA 경력자 인천 전자랜드의 헨리 심스(20·208cm), 부산 KT의 마커스 데릭스(24·201cm), 전주 KCC의 타일러 데이비스(23·208cm) 등도 주목해볼만 한 선수들이다. 고양 오리온의 디드릭 로슨(23·201cm)은 KBL컵에서 맹활약을 펼쳐 팀의 우승에 기여하며 기대치가 올라갔다.

●라건아·자밀 워니의 경쟁력은 여전한가?

매년 외국인선수 계약에 있어서 경력자는 '믿고 쓰는 카드'로 통했다. 그러나 올 시즌은 외국인 수준이 예년에 비해 높아져 애런 헤인즈(39·199cm), 찰스 로드(35·200cm) 등 오랜 기간 KBL을 뒀던 경력자들이 외면을 받았다.

20명의 선수 중 KBL경력자는 전주 KCC의 라건아(31·199cm), 서울 SK의 자밀 워니(26·200cm), 닉 미네라스(32·200cm), 창원 LG의 캐디 라렌(28·204cm), 리온 윌리엄스(34·197cm) 등 5명이다. 3시즌 이상을 소화한 선수로 범위를 넓히면 라건아와 윌리엄스뿐이다. 이들이 수준 높은 새 얼굴들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팀의 운명이 달렸다. 일단 KBL컵에서는 5명 모두 안정적인 기량을 뽐냈다.

A 구단 스카우트는 "외인들의 신장이 전체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라건아, 워니, 윌리엄스는 높이에서 부담스러운 경쟁을 하겠지만, KBL컵에서 드러났듯이 이들의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B 구단 국제업무 담당자는 "KBL컵에서는 경력자들이 강세였지만, 새 얼굴들이 제 컨디션을 찾고 리그에 적응해나갈 때에는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다. 1라운드도 지나는 시점에도 경력자들이 강세라면 헤인즈나 로드가 대체선수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WKBL 유일 190cm ↑' 박지수와 KB스타즈 천하?

(198cm)

WKBL 2020~2021시즌 10일 개막

11 외국인선수 없는 새 시즌 전망

국내 여자프로농구를 주관하고 있는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은 2020~2021시즌을 앞두고 잠정적으로 외국인선수제도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10월 10일 개막하는 'KB국민은행 Liiv M 2020~2021 여자프로농구'는 국내선수들만 치러진다.

●'존재 자체가 반칙' 최고 센터 박지수의 강렬한 존재감

높이가 강한 팀이 유리한 농구 종목 특성상 국내 최고 센터 박지수(22·198cm)를 보유한 청주 KB스타즈가 새 시즌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손꼽힌다. 외국인선수들이 없는 현재, WKBL 등록 선수 중 190cm 이상의 선수는 박지수뿐이다. 독보적인 높이에 기량 면에서도 물이 올라있다. 지난 시즌에는 정규리그 21경기에서 평균 13.8점(리그8위)·11.0리바운드(3위)·4.3어시스트(5위)·1.4스틸(10위)·2.3블록슛(1위)



WKBL은 2020~2021시즌 외국인선수 없이 국내 선수들만 시즌을 치른다.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국내 최고 센터 박지수(198cm)를 보유한 KB스타즈는 강력한 우승후보로 손꼽히고 있다. 다른 5팀들이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나올지 주목된다. 사진제공 | WKBL

등 다방면에서 존재감을 나타냈다. 국내선수 중 박지수를 1대1로 막을 수 있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다. '골밑은 박지수의 높이 터가 될 것'이라는 인천 신한은행의 정상일 감독(53)의 말은 과언이 아니다. A구단 관계자는 "박지수의 존재 자체가 반칙"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했다.

지난 시즌까지 각 팀은 박지수의 수비를 외국인선수에 맡겼다. 이제는 국내선수 자원으로 박지수를 막아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KB스타즈를 제외한 모든 팀들이 비 시즌 내내 도움수비와 변형 지역방어에 공을 들인 것도 박지수를 겨냥한 것이다.

●우승은 KB스타즈가 떼어 놓은 대상? 그래도 틀은 있다

WKBL은 새 시즌 개막에 앞서 선수, 팬, 미디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중 '강력한 우승후보' 문항에서 KB스타즈는 전체 299표 중 가장 많은 98표(32.8%)를 획득했다. 이 역시 박지수의 존재가 가져온 결과다.

그러나 박지수의 존재가 우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승부에 '절대'란 없다. KB스타즈를 제외한 5개 팀은 변수를 노리고 있다. 외국인제도 중단이 KB스타즈에게도

1대1 막을 자 없는 최고 센터 공격 핵심 손튼 부재는 변수

타격이 될 것이라는 시선도 적지 않다. 그동안 KB스타즈와 만난 팀들은 박지수만큼이나 카일라 손튼(28·185cm)의 존재도 부담스러워했다. KB스타즈는 지난 두 시즌(2018~2019·2019~2020시즌)동안 외국인들과 매치업을 하는 박지수보다 국내선수와 매치업을 하는 손튼에게 공격 비중을 높여 훌륭한 재미를 봤다. 이는 박지수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는 "외국인선수가 없으면 우리 팀이 돋보일 것이라고 하지만, 나도 손튼 덕을 많이 봤다. 손튼의 공격력이 좋았기 때문에 나는 수비에 더 집중하면서 체력을 비축할 수 있었다. 이제 공격과 수비에 전부 에너지를 쏟아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아산 우리은행의 위성우 감독(49)은 "박지수가 정말 좋은 선수지만 마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다. KB스타즈도 손튼이 없기 때문에 스피드나 공격이 이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약점을 찾아 공략을 해야 한다. 같이 높이로 붙어서는 이길 수 없다. 센터 없이 또 다른 색깔의 농구를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새 시즌 각오를 밝혔다. KB스타즈를 상대해야 하는 다른 팀들도 우리은행과 비슷한 구상을 하고 있어 이 카드가 통할지 주목된다. 정지욱 기자